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Tel: 044-414-1263)

차 례

1.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 추진 배경
2.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
3. 시사점

주요 내용

- ▶ 전 세계적으로 인도가 유망한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인도 내 산업화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화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프로젝트의 투자 잔액이 최근 대폭 증가하였고, 인도를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인식하는 다수의 국내외 제조업체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이 인도 내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내수시장]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인도에서 기존의 빈곤층 축소 및 중산층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구재 소비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안정성]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에 힘입어 인도의 환율, 물가 등 각종 지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교통 인프라] 제조업 클러스터를 잇는 운송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힘입어 국내외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도정부는 디지털화, 중앙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인프라의 질적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인도정부는 재정적으로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해당 정책이 육성하는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인도 대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고 있음.
 - [국제정치경제] 인도정부는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한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참여를 통해 선진국 경제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음.
- ▶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신흥 제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은 인도를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점검하고 △인도정부의 다양한 개발목표 이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현지 지사 내 산업정책 대응조직 마련 △주(州)별 차별화 접근 등을 통해 제조업 투자환경 변화의 혜택을 십분 누릴 필요가 있음.
 - 운송 인프라, 물류, 유통,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등 인도의 제조업 육성전략과 연계된 산업에서도 진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정부는 교역 확대, 공급망 연계 강화 등을 목표로 인도와의 경제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양국 기업, 싱크탱크, 산업단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 추진 배경

■ 인도는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추격(catch-up)을 경험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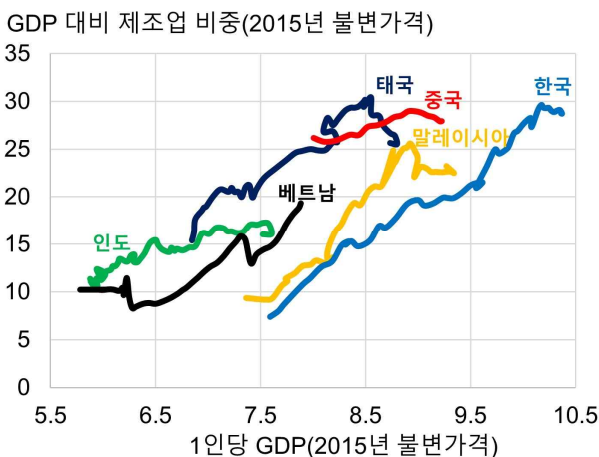
- 제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성, 높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실현 및 교역 가능성, 강한 연쇄(linkage) 및 파급(spillover) 효과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¹⁾
- 산업화와 함께 말레이시아는 1992년에, 태국과 중국은 2010년에 중고소득 국가로, 한국은 1995년에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였고(세계은행 기준), 최근에는 중저소득 국가인 베트남이 새로운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함.
 - 아시아의 중고·고소득 국가들의 고도성장 기간에 제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으로 확대되었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전후를 기록함(그림 1, 2 참고).
 - 베트남의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은 2020년 20% 전후 수준으로 확대됨.
- 인도에서는 적정 수준의 산업화를 달성하기 전에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조기 탈산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²⁾

■ 인도는 지난 20년간 서비스업 중심의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인도정부는 향후 고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2014년부터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전략을 추진함.

- 인도의 총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고, 인력이 농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함(그림 3 참고).

그림 1. GDP 대비 제조업 비중(197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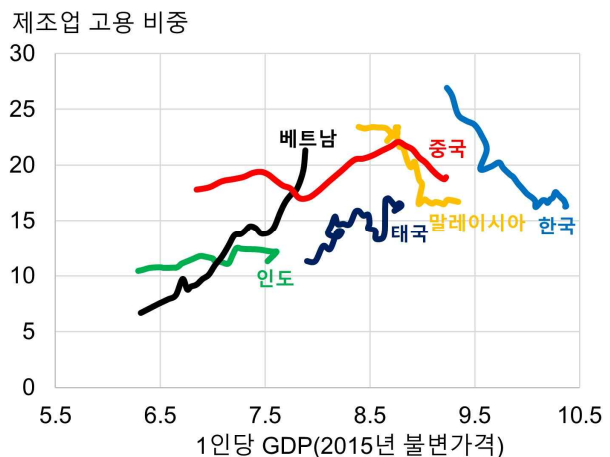
(단위: 달러(자연로그), %)



주: 중국 자료는 2004~20년 자료임.
자료: United Nations National Accounts - Analysis of Main Aggregates Database.

그림 2. 제조업 고용 비중(1991~2020년)

(단위: 달러(자연로그), %)



자료: ILOstat Modelled Estimates; United Nations National Accounts - Analysis of Main Aggregat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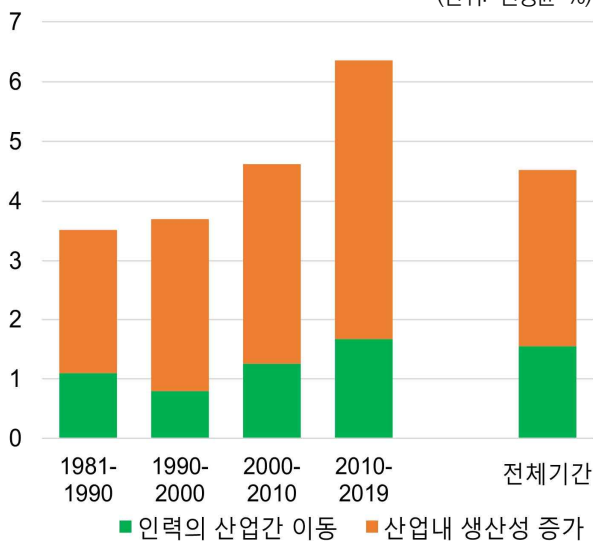
1) Rodrik, Dani(2013), "Unconditional convergence in manufactur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1): 165-204; Szirmai, Adam et al. eds(2013), *Pathways to industrial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2) Amirapu, Amrit and Arvind Subramanian(2015), "Manufacturing or services? An Indian illustration of a development dilemma,"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Rodrik, Dani(2016),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21: 1-33.

- 그러나 인력 대부분이 건설업, 도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비농업 부문으로 유입되었고, 유틸리티, 통신업, 금융업 등 생산성이 높은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제한적이었음(그림 4 참고).
- 이에 인도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시행함.
 - o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은 제조업 투자를 활성화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1억 개의 신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
 - o 전략 초기에는 사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점차 제조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함.

■ 최근 인도에서 대규모 제조업 투자계획이 발표되면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이 재조명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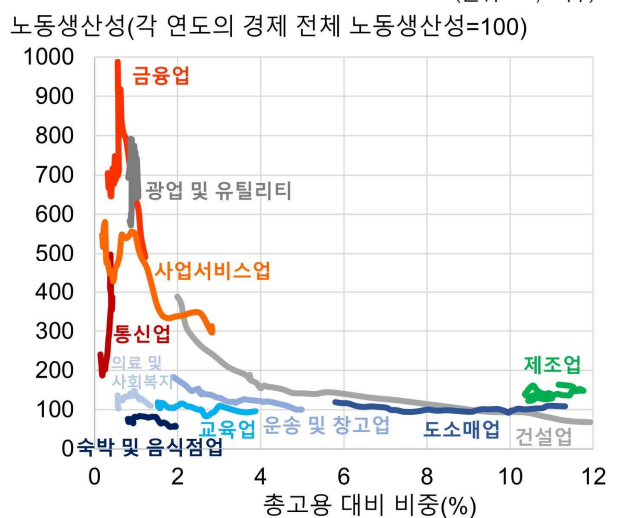
-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의 가시적인 효과가 단기간 내 발생하지 않아 2010년대 하반기에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최근 인도가 주요한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해당 전략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함.
- 2019~22년 제조업 프로젝트의 투자 잔액이 과거 3년 대비 약 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함(그림 5 참고).
 - o 제조업 프로젝트 투자 잔액의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의 완료가 지연된 점에 기인하기도 하나, 2022년에 신규 프로젝트가 전년대비 186%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제조업 프로젝트의 투자 잔액 중 금속, 건설자재 등 노동 및 자원 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화학, 기계 등 중·고 기술을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2022년에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내 주요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계획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생산기지의 인도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표 1 참고).

그림 3. 인도의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도 분해
(단위: 연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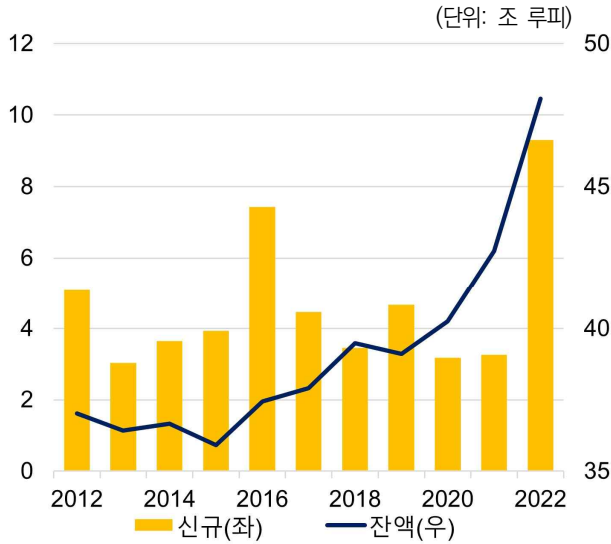
주: 1) McMillan & Rodrik(2011)의 기여도 분해 방법을 사용.
 2) 2012년 불변가격 자료를 사용해 계산함.
 3)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2018. 4. 1~2019. 3. 31을 의미함.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KLEMS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인도의 산업별 고용과 노동생산성(1981~2019년)
(단위: %,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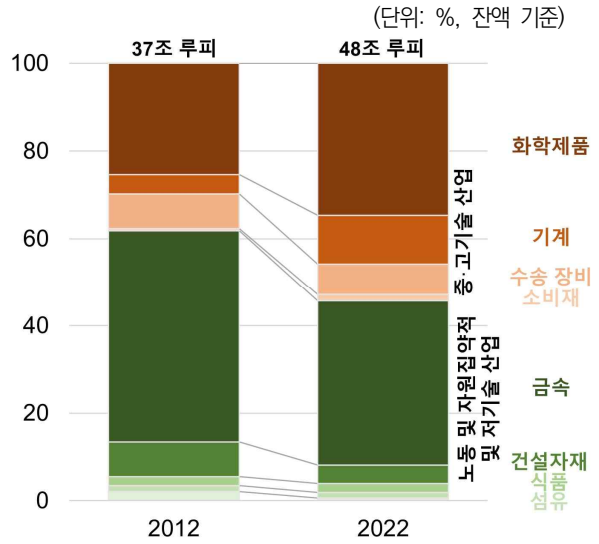
주: 1) [그림 4]는 해당 기간 총고용 대비 비중이 늘어난 산업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중이 줄어든 '농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은 그래프에서 제외함.
 2)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KLEMS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인도 내 제조업 프로젝트 투자 규모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CMIE Economic Outlook.

그림 6. 인도 내 제조업 프로젝트 투자 규모의 업종별 비중



주: 1) Lal(2000)의 품목별 제조업 기술 수준 구분을 적용하여 분류함.
2)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CMIE Economic Outlook.

표 1. 2022년에 발표된 주요 기업의 인도 내 투자계획¹⁾

기업	투자 규모 ²⁾	주요 투자 분야
아다니	1,000억 달러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타타	900억 달러 ³⁾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폭스콘-베단타	191억 달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릴라이언스 ⁴⁾	100억 달러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IGSS 벤처스	31억 달러	반도체
ISMC	28억 달러	반도체
스즈키	14억 달러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토요타	6억 달러	전기자동차 부품
현대자동차 ⁵⁾	5억 달러	전기자동차
마힌드라-BII	5억 달러	전기자동차(SUV)
비보	4억 달러	휴대전화기
삼성전자	2억 달러	냉장고 압축기

주: 1) 투자계획의 기간 및 범위가 기업마다 상이해 단순 비교가 어려움. 일부 계획의 경우 국외 투자를 포함하고 있음.
2) 루피화 자료의 경우 2022년 9월 22일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함.
3) 2022년 9월 기준 이코노미스트지의 추정치이며 이 중 77%가 인도 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4) 릴라이언스는 2021년에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에 구체적인 투자 추진방안을 발표함.
5) 현대자동차는 2021년 말에 투자계획을 발표함.

자료: Ahmed, Aftab & Aditi Shah(2022. 3. 21), "Japan's Suzuki to invest \$1.4 billion for EVs at India factory," *Reuters*; Anil, Aswetha(2022. 5. 2), "International Semiconductors Consortium (ISMC) to invest ₹22,900 crore in Karnataka: Why it's a big deal," *Hindustan Times*; Chakraborty, Sayan(2022), "India's Adani Group plans to invest over \$100bn in next decade," *Nikkei Asia*; Choudhury, Santanu(2021. 12. 8), "Hyundai India plans to invest ₹4,000 cr to rev up EV biz," *Mint*; Cornish, Chloe(2022. 8. 30), "Mukesh Ambani says India can rival China in green tech," *Financial Times*; "IGSS Ventures to invest over Rs 25,000-crore in Tamil Nadu chip project"(2022. 7. 2), *Financial Express*; "Samsung reaffirms commitment to India with INR 1588 crore investment to set up new compressor plant for refrigerators; Signs MoU with Government of Tamil Nadu"(2022. 3. 15), *Samsung Newsroom India*; Shah, Aditi *et al.*(2022. 9. 23), "Indian automaker Mahindra in talks to raise up to \$ 500 mln for EV push," *Reuters*; Shukla, Sidhartha(2022. 5. 8), "Toyota to invest \$624 million to make EV parts in India," *Bloomberg*; "The world's biggest bet on India"(2022. 9. 17), *The Economist*; Vengattil, Munsif & Aditya Kalra(2022. 9. 13), "Vedanta, Foxconn to invest \$19.5 billion in India's Gujarat for chip, display project," *Reuters*; "Vivo to invest Rs 3,500 crore in India by 2023, plans to start export mobile devices in 2022"(2022. 2. 16), *The Economic Times*.

■ 본고에서는 최근 제조업 투자 활성화의 동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자 함.

-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산업화 전략은 특정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수직적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괄함.
- 과거 빠른 속도의 산업화를 경험한 아시아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특성을 파악하여 5개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도 사례를 분석함(그림 7 참고).³⁾
 - 내수시장의 규모와 인구 소득구조는 제조업체들의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⁴⁾
 - 제조업체들의 자금 관리, 교역, 투자계획 집행에 있어 금융 안정성이 중요함.⁵⁾
 -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 인프라 수준이 제조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⁶⁾
 - '투자 및 수출의 양적 목표치와 같은 조건부'와 '일몰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절하게 설계된 지원정책은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생산할 때 직면하는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⁷⁾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해당국의 지위 및 입장에 따라 경제협력 기회가 변화함.⁸⁾
- 분석 항목별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동향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점검함.

그림 7. 인도 제조업 투자환경 분석 항목



3) Amsden, Alice(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Chang, Ha-Joon(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Palgrave Macmillan; Johnson, Chalmers(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Wade, Robert(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 Robert Vishny(1989), "Income distribution, market size, and industrializ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3): 537-564.

5) Botta, Alberto, Giuliano Toshiro Yajima, & Gabriel Porcile(2022), "Structural change, productive development, and capital flows: Does financial "bonanza" cause premature industrialization?"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999.

6) Bjorvatn, Kjetil(2000), "Urban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8(2): 205-218.

7) Cherif, Reda & Faud Hasanov(2019), "The return of the policy that shall not be named: Principles of industrial policy," IMF Working Paper WP/19/74; Noman, Akbar & Joseph Stiglitz eds.(2016), *Efficiency, finance, and varieties of industrial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Salazar-Xirinachs, José, Irmgard Nübler & Richard Kozul-Wright eds.(2014), *Transforming economies: Making industrial policy work for growth, job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8) Gray, Kevin(2011), "Taiwan and the geopolitics of late development," *The Pacific Review*, 24(5): 577-599; Kriekhaus, Jonathan(2017), "Geopolitics and South Korea's economic success," *Asian Perspective*, 41(1): 43-69.

2.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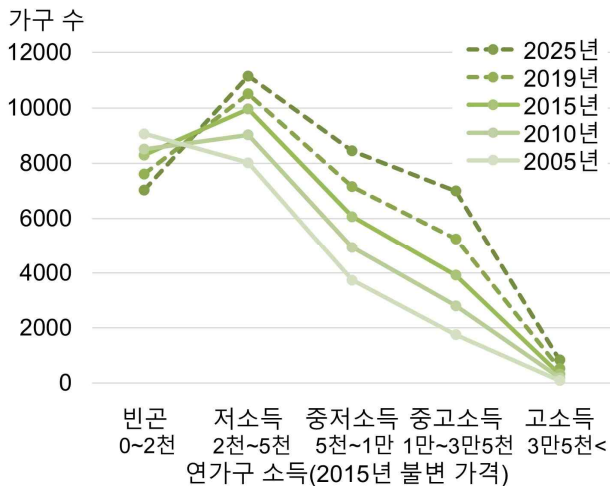
가. 내수시장 성장

■ 인도의 인구소득 구조가 변화하며 내구재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인도의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하루 1인당 소비 3.65달러 미만 인구 비율이 2004년 77%에서 2015년 61%, 2019년에는 45%로 감소함.⁹⁾
- 빈곤층을 벗어난 저소득 가구와 상당한 규모의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기 시작한 중소득 가구수가 확대됨.¹⁰⁾
 - 2010~19년 저소득 가구와 중소득 가구수가 각각 1,480만 개, 4,650만 개 증가함(그림 8 참고).
-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빈곤층 축소 및 중산층 확대 추세가 향후 경제회복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시 가구의 69%, 농촌 가구의 85%에 식품 및 현금을 지원하는 등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¹¹⁾
- 대형 가전제품 등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소비층의 확대와 함께 내구재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기적으로 대부분의 내구재 소비지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 휴대전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그림 9 참고).

그림 8. 인도의 소득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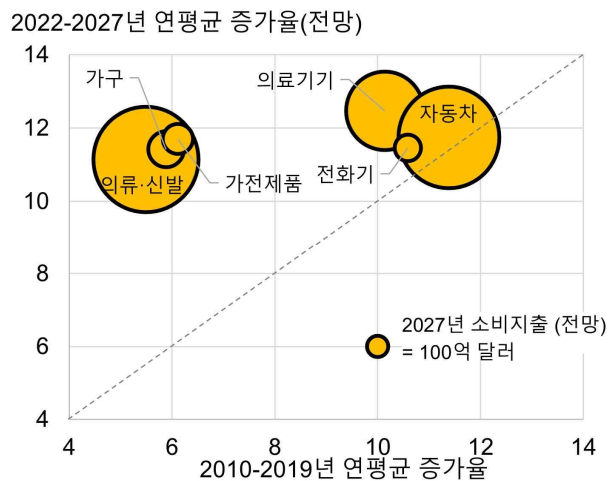
(단위: 달러, 만 가구)



주: 2019년부터는 Oxford Economics의 추정/전망치임.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

그림 9. 인도의 주요 품목별 소비지출

(단위: %, 달러)



주: 2022년부터는 Oxford Economics의 추정/전망치임.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

9) 2017년 구매력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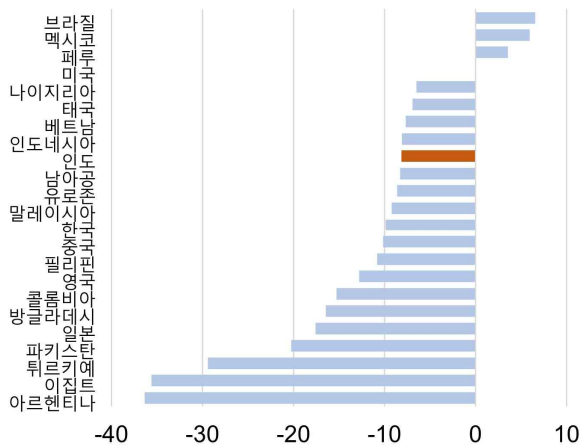
10) 소득별 가구 구분은 가용 자료와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함. 중저소득 가구와 중고소득 가구의 최소 소득을 World Economic Forum(2019), "Future of consumption in fast-growth consumer markets: INDIA"에서는 2017~18년 불변가격 기준 각각 4,000달러와 8,500달러로, McKinsey(2021), "Beyond income: Redrawing Asia's consumer map"에서는 2011년 구매력평가 기준 각각 8,000달러와 22,000달러로 설정함.

11) World Bank(2022),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2: Correcting course."

나. 금융 안정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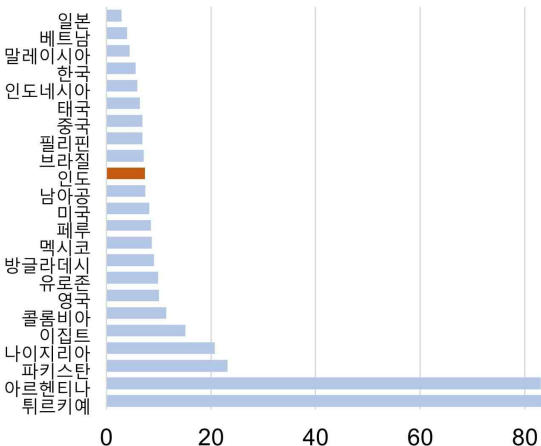
- 10년 전 인도는 경제 펀더멘털이 열악한 5개 신흥국을 통칭하는 'Fragile Five'로 불렸으나, 최근 환율 및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고위험 신흥국이라는 오명을 벗음(글상자 1 참고).
-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환율 가치가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위기에 직면한 신흥국은 물론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환율보다 소폭 하락함(그림 10 참고).
- 인도 중앙은행은 비축해 놓은 외환보유고를 금융 변동성 축소를 위해 사용함.
 -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3년간 57% 증가하며 2021년 3/4분기 5,9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외환시장 개입으로 2022년 3/4분기 4,950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이는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임.¹²⁾
- 인도의 2022년 9월 물가상승률은 7.4%로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그림 11 참고), 2022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¹³⁾
 - 인도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은 결과,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이 2021/22년 0.2%에서 2022년 10월 22%로 확대됨.¹⁴⁾
- 인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며, 물가 압력이 중단기적으로 지속되더라도 기업 및 가구 부채 규모와 과거 금리 수준을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큼.
 - 물가상승률이 목표 상한선인 6%를 상회하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4%에서 2022년 5월에 4.4%, 6월 4.9%, 8월 5.4%, 9월 5.9%로 인상했으나 현재 정책금리는 지난 10년간 최고치인 2014년 1월의 8%보다 낮음.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높은 금융 안정성은 주식시장 호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투자를 고려하는 제조업체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함.
 - 2022년 12월 1일 인도 센섹스 지수는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63,284를 기록함.

그림 10. 주요국의 달러 대비 환율 가치 변화
(단위: 2022. 1. 3~11. 14 % 변화)



자료: Refinitiv Eikon Datastream.

그림 11.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단위: 2022년 9월, 전년동월대비 %)



자료: Refinitiv Eikon Datastream.

12)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
 13) Reserve Bank of India(2022), "RBI bulletin October 2022."
 14) "Russia becomes India's top oil supplier in October"(2022. 11. 6), *The Hindu*.

글상자 1. 인도의 경제 펀더멘탈: 2013년과 2022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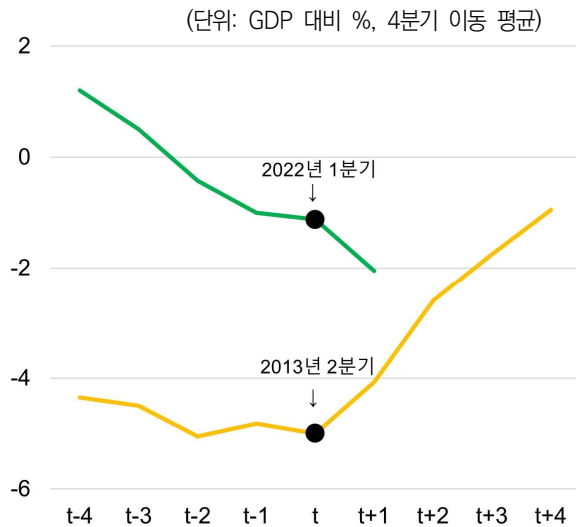
- 미국 통화정책 기조에 분위기 전환이 있었던 2013년 2/4분기와 2022년 1/4분기(그림 12 참고) 중 두 번째 시기에 인도경제의 펀더멘탈은 더욱 견고했던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Taper Tantrum 당시 신흥국 자금 유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경상수지(그림 13 참고) △물가(그림 14 참고) △외환보유고(그림 15 참고)가 개선된 상황임.
- GDP 대비 외채 비율과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22년 1/4분기 각각 17.6%와 19.6%로 2013년 2/4분기의 22.0%와 23.9%보다 양호함.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부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인도의 2020년 GDP 대비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는 각각 89.2%와 7.6%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3년의 67.7%와 2.4%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12.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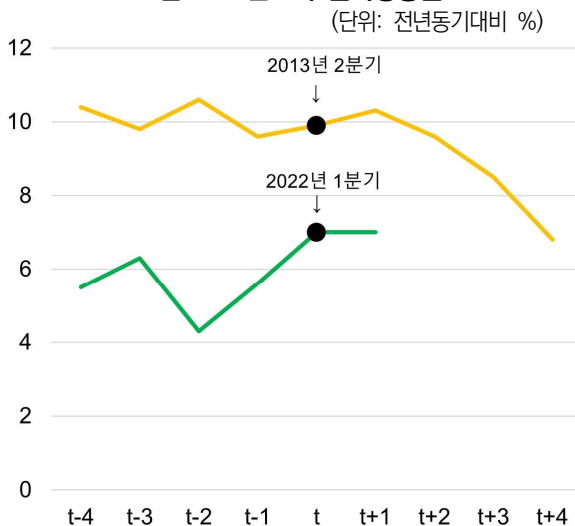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그림 13. 인도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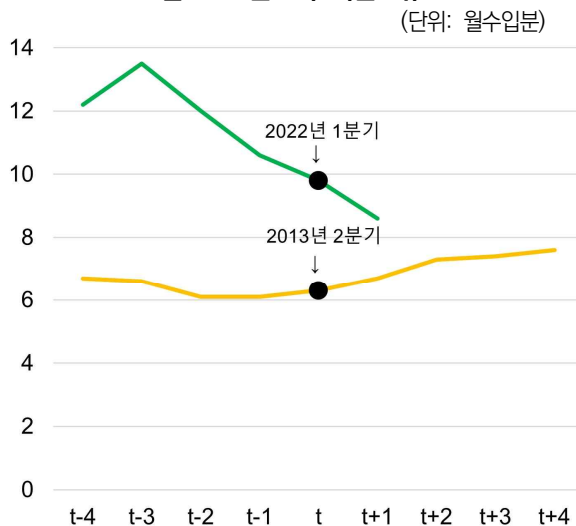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

그림 14. 인도의 물가상승률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

그림 15. 인도의 외환보유고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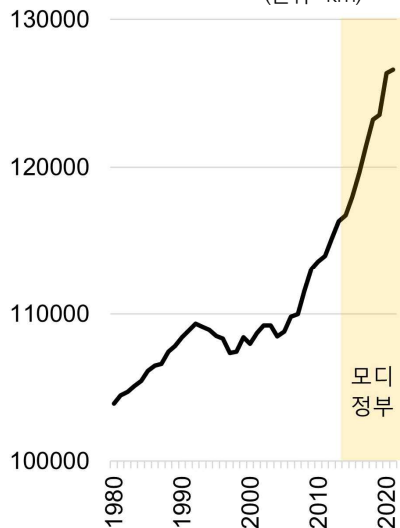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 Sahay, Ratna *et al.*(2014), "Emerging market volatility: Lessons from the taper tantrum,"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14/09.

다. 교통 인프라 확충

■ 높은 운송 비용이 산업화의 주요 걸림돌로 인식되자¹⁵⁾ 2010년대 중반부터 모디 정부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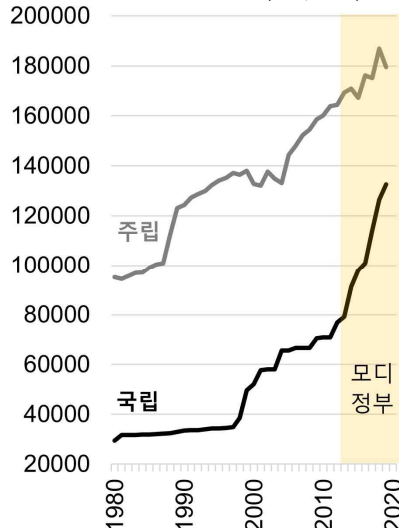
-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2008~12년 24조 루피에서 2013~17년 36조 루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정부투자가 전체 기간 투자의 약 70%를 차지함.¹⁶⁾
- [철도] 궤도 연장이 2014년 이후 9,846km 늘어나며 2021년 기준 12만 6,611km를 기록하였으며(그림 16 참고), 철도물동량은 2014년 10억 5,164만 톤에서 2022년 14억 1,827만 톤으로 증가함.
- [도로] 국립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연장이 2014년 이후 4만 9,929km 추가되어 2019년 기준 31만 2,034km를 기록함(그림 17 참고).
- [항만] 총 항만물동량이 2014년 9억 7,271만 톤에서 2021년 12억 4,980만 톤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양적·질적 개선에 힘입어 반출입 평균 소요시간이 3.9일에서 2.3일로, 접안 전 평균 소요시간은 1.7일에서 1.1일로 단축됨(그림 18 참고).
- [산업단지] 인도의 주요 제조업 클러스터는 항만과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으며(표 2 참고), 최근 운송 인프라의 확장에 힘입어 내륙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며 클러스터 진출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됨.¹⁷⁾
 -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2000년대 인도의 지리적 모양과 유사한 긴 마름모 형태로 추진되었고, 2010년대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회랑을 중심으로 가속화됨.
 - 2020년 기준 8대 도시를 기점으로 도로를 통해 12시간 내 인도 전체 인구의 90%에 도달할 수 있음.

그림 16. 인도의 궤도 연장
(단위: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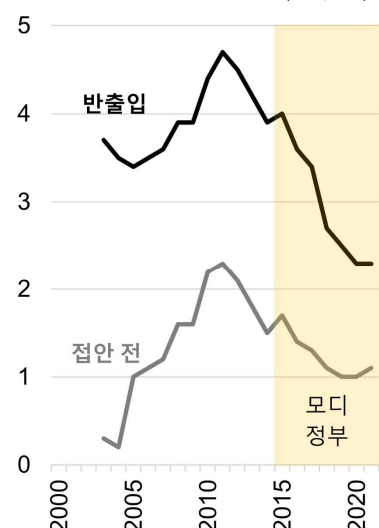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CMIE Economic Outlook.

그림 17. 인도의 고속도로 연장
(단위: km)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CMIE Economic Outlook.

그림 18. 항만 관련 소요시간
(단위: 일)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CMIE Economic Outlook.

15) Dangra, Abhishek(2016), "The missing piece in India's economic growth story: Robust infrastructure," S&P Global.

16)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task force(2019),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Volume 1," Ministry of Finance.

17) Pranav, Divay, Sanchi Padia, Aritra Das & Charmy Shah(2020), "Great places for manufacturing in India," Invest India & JLL.

- 인도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체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정부는 GDP 대비 물류비용을 현재의 13%에서 2030년까지 8%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인프라 파이프라인] 규모가 10억 루피 이상인 인프라 프로젝트 중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020~25년 사이 추진하는 계획으로, 총 예상 투자액은 111조 루피로 추정됨.¹⁸⁾
 - 도로(18%), 철도(12%), 항만(1%) 등 운송 인프라가 전체 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가티샷틱 국가연결성계획] 조정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16개 인프라 관련 정부기관의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전략으로, 2021년에 발표됨.¹⁹⁾
 - 2010년대 중반에 시작된 도로개발 전략인 바하라트말라 파리오자나, 항만개발 전략인 사가르말라, 지방 공항 개발전략인 UDAN 등 다중모달(multi-modal)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임.
 - 전자, 방위, 제약 산업 등 제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임.
 - [국가물류정책] 인프라 관련 정부기관의 물류 관련 디지털 포털 및 정보교환 플랫폼을 통합하여 운송 비용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2022년에 발표됨.²⁰⁾
 - [예산] 인도정부는 인프라 등 자본지출이 전년대비 35% 늘어난 2023년 '메가 CAPEX' 예산을 발표함.²¹⁾
 - 정부 자본지출 예산이 2022년 5조 5,411억 루피에서 2023년 7조 5,026억 루피로 확대됨.

표 2. 주요 제조업 클러스터 및 근접 운송 인프라

산업	지역명	주요 진출기업	근접 항만	근접 고속도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푸네-아우랑가바드	포드, GM, 폭스바겐	뭄바이항, JNPT항	NH48(델리-첸나이), NH65(푸네-마술리파트남)
	첸나이-스리페람부드르-오라가담, 스리시티	현대자동차, 슈잉-슈테터, 다임러	첸나이항, 엔노르항	NH48(델리-첸나이), NH32(첸나이-나가파티남), NH16(콜카타-첸나이)
	마네사르-파리다바드-구르가온	마루티 스즈키, 혼다, 히로	-	NH48(델리-첸나이), KMP 고속도로
의약품	하이데라바드-메달	노바티스, GSK, 알렘빅	비사카파트남항	NH44(스리나가르-간야꾸마리), NH765(하이데라바드-토카팔리), NH65(푸네-마술리파트남)
	벵갈루루	아스트라제네카, GSK, 바이오콘	첸나이항, 엔노르항, 뉴망갈로르항	NH48(델리-첸나이), NH44(스리나가르-간야꾸마리), NH948(코임바토르-벵갈루루)
	아메다바드-하를-바도다라	자이더스 카달라, 썬파마, 토렌트파마	칸들라항	NH48(델리-첸나이), NH228(아메다바드-단디), NH947(사르케지-오카)
	바디	람박시, 닥터 레디스 라보라토리스, 애보트	-	NH105(핀조-스와르가트)
전자 및 가전 제품	노이다-그레이터노이다	비보, 하이얼, 오포, 삼성, LG	-	노이다-그레이터노이다 고속도로, FNG 고속도로, NH44(스리나가르-간야꾸마리)
	첸나이-스리페람부드르, 스리시티-티루파티	폭스콘, 플레트로닉스, 노키아, 샤오미, 삼성	첸나이항, 엔노르항	NH48(델리-첸나이), NH32(첸나이-나가파티남), NH16(콜카타-첸나이)
	푸네-아우랑가바드	LG, 자빌, 필리스, 윌풀, 보쉬	뭄바이항, JNPT항	NH48(델리-첸나이), NH65(푸네-마술리파트남)

자료: Pranav, Divay, Sanchi Padia, Aritra Das & Charmy Shah(2020), "Great places for manufacturing in India," Invest India & JLL.

18)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task force(2019),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Volume 1," Ministry of Finance.
 19) Prime Minister's Office(2021. 10. 12), "Prime Minister to launch PM GatiShakti on 13th Oct," PMO Press Release.
 20) PMINDIA(2021. 9. 17), "PM launches National Logistics Policy," PMINDIA News Updates.
 21) Kumar, Ashutosh(2022. 2. 9), "The big public infra bet," Fortune India.

라. 투자 인센티브 제공

■ 모디 1기 정부는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에 산업전략의 초점을 맞춤.²²⁾

- 2014년 인도정부가 발표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는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됨.
 - 해당 전략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광업, 오일·가스업, 건설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광업, 항공업 등 총 25개의 산업을 대상으로 함.
- 인도정부가 사업허가 단계의 폐지·통합·온라인화 등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도의 세계은행 사업환경 순위가 2014년 142위에서 2019년 63위로 급상승함.²³⁾
 - 특히 건설허가 지수 순위가 184위에서 27위로, 전력 확보 지수 순위는 137위에서 22위로 대폭 개선됨.
-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한 결과 OECD FDI 규제 지수(0=개방, 1=폐쇄)가 2014년 0.258에서 2019년 0.207로 하락함.²⁴⁾
 - 특히 항공운수업(0.788→0.280), 라디오·TV 방송업(0.440→0.210), 보험업(0.500→0.357), 농업(0.568→0.442), 건설업(0.120→0.050) 등의 산업에서 FDI 규제가 대폭 완화됨.
- 2017년 인도정부가 간접세 체계를 통합하면서 기업들의 행정비용이 감소함.²⁵⁾

■ 2020년 모디 2기 정부는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시행함.

- PLI 제도는 규모의 경제 실현, 수입 대체 및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1991년 인도의 경제개방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PLI 제도는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제조업 지원책으로, 사전에 선별된 국내외 제조업체는 투자, 매출, 국내 부가가치 등 산업별로 다른 조건부를 매년 달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인도정부는 PLI 제도를 통해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국내외 제조업체에 2조 8,000억 루피(350억 달러)를 2020년대 중후반까지 지원할 계획임(표 3 참고).
- PLI 제도의 대상인 제조업 세부 분야 수가 2020년 3월 3개에서 시작해 2020년 11월 10개, 2021년 9월 1개, 2022년 9월 1개가 추가되어 총 15개에 달하며, 지원금의 상당 비중이 신성장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휴대전화기] PLI 제도가 가장 일찍 도입된 분야 중 하나로, 생산 규모가 2016/17년 9,000억 루피에서 2021/22년 2조 7,500억 루피로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수출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에서 16%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글상자 2 참고).²⁶⁾
 - [태양광 발전 모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으로 태양광 발전용량이 2016년 6.8GW에서 2021년 40.1GW로 확대되었고, 2030년 280GW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발전 모듈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2022년 9월 PLI 제도 예산을 기존 계획 대비 5배 이상 확대함.²⁷⁾

22) 한형민 외(2019),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 Make in India 웹사이트. "Ease of doing business."

24) 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웹사이트.

25) Chawla, Achal(2022. 8. 17), "5 years of GST: Has it done enough to propel Make in India?" *The Economic Times*.

26) Rathee, Kiran(2022. 10. 14), "Monthly mobile phone exports hit record \$1 billion in September," *The Economic Times*.

- [배터리] 인도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배터리 산업 지원계획인 50Gwh의 2.6배 규모인 130Gwh의 지원 요청이 발생하는 등 제조업체들의 참여 의지가 강함.²⁸⁾
- [반도체] 정부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반도체 산업이 곧 전략산업이 되었다는 점과 반도체를 탑재한 내구재에 대한 국내 소비가 대폭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가장 큰 규모의 PLI 제도 예산을 해당 산업에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9월 프로젝트 비용 대비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함.²⁹⁾

표 3. PLI 제도의 주요 내용(2022년 9월 말 기준)

산업	주요 제품(예시)	총 지원계획	확정된 피지원 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좌동	7,600억 루피	미정
전자제품 대규모 생산	휴대전화기	4,095억 루피	라이징스타, 삼성전자, 폭스콘, 위스트론, 페가트론, 라바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좌동	2,594억 루피	마루티 스즈키, 히로 모토코프, 타타 오토컴프, 미스비시 일렉트릭, 토요타 키르로스카르, 현대 모토 인디아, 포드 인디아 프라이벳 등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모듈	2,400억 루피	아다니 인프라스트럭처, 릴라이언스 뉴에너지 솔라 등
의료기기	방사선 치료기기, 영상진단장비	1,842억 루피	SMT, 필립스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 지멘스헬스케어, 위프로GE헬스케어 등
화학제품	배터리	1,810억 루피	릴라이언스 뉴에너지, 올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라제시 엑스포트스 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복제약품	1,500억 루피	썬 파마수티클 인터스트리스, 닥터 레드스 라보라토리스, 루핀, 시플라 등
전기통신기기	전송장비, 네트워크기기, 사물인터넷(IoT) 기기	1,220억 루피	플렉스트로닉스 테크놀로지스, 폭스콘 테크놀로지, 노키아 솔루션스 앤드 네트워크스, 라이징스타스 하이테크 등
식품	기성식품	1,090억 루피	브리타니아 인터스트리스 등
직물, 의류	인조섬유	1,068억 루피	아브골 인디아, 쿠바틱스 인터스트리스, 고아 글라스 파이버 등
정보통신(IT)	(휴대용)컴퓨터, 태블릿, 서버	733억 루피	델, ICT(위스트론), 플렉스트로닉스, 라이징스타스 하이테크, 라바 등
원료의약품	주요출발물질, 의약품 반제품, 유효약리성분	694억 루피	오로빈도파마, 킨반, 카르나타카 안티바이오텍스 & 파마수티클스, 메크레오즈 파마수티클 등
금속	철강제품	632억 루피	미정
백색가전제품	에어컨, 발광다이오드	624억 루피	다이킨 에어컨디셔닝, 아다니 코퍼 튜브스, LG전자, 위프로 엔터프라이지스 등
항공	드론 및 드론 제품	12억 루피	미정

자료: Bhardwaj, Naina(2022. 3. 10), "What are Production-Linked Incentive schemes and how will they improve India's manufacturing capacity?" *India Briefing*; Bhardwaj, Naina & Melissa Cyrill(2022. 3. 15), "Full list of approvals released: PLI scheme for automobile and auto components industry," *India Briefing*; ET Online(2022. 9. 18), "Steel PLI scheme: Government gets applications from domestic players," *The Economic Times*; ET Online(2022. 9. 21), "Union Cabinet approves changes in PLI scheme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he Economic Times*;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2. 6. 28), "15 companies selected under 2nd Round of PLI scheme for white goods (ACs and LED Lights) with committed investment of Rs 1,368 crore," *PIB Delhi*; Ministry of Electronics & IT(2020. 10. 6), "PLI scheme to herald a new era in mobile phone and electronic components manufacturing," *PIB Delhi*; Ministry of Electronics & IT(2022. 3. 23), "PLI for IT hardware," *PIB Delhi*; Ministry of Heavy Industries(2022. 7. 29), "Three companies signed Program Agreement under (PLI) scheme for advanced chemistry cell (ACC) battery storage," *PIB Delhi*; Ministry of Textiles(2022. 4. 14), "A total of 61 applicants approved under 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scheme for textiles out of 67 applications received," *PIB Delhi*.

27) Goswami, Sweta(2022. 9. 22), "Cabinet approves second tranche of PLI scheme to boost manufacturing of solar modules," *Hindustan Times*;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웹사이트, "Solar energy";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2022. 7. 28), "Steps by government to enhance the domestic manufacturing of solar module," *PIB Delhi*.

28) Ministry of Heavy Industries(2022. 1. 15), "A total of 10 bids with capacity ~ 130 Gwh received under the 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scheme for advanced chemistry cell (ACC) battery storage," *PIB Delhi*.

29) Ministry of Electronics & IT(2022. 3. 23), "India Semiconductor Mission," *PIB Delhi*; Cabinet(2022. 9. 21), "Cabinet approves modifications in "Programme for development of semiconductors and display manufacturing ecosystem in India," *PIB Delhi*.

글상자 2. 인도의 애플 제품 생산역량 확대

- 최신 애플 아이폰의 글로벌 판매 시작 시점과 인도 내 생산 시작 시점의 격차는 2021년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3의 경우 약 7개월에서 2022년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4의 경우 10일로 단축되었는데, 이는 인도 내 강화된 생산능력, 인프라, 공급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대만기업인 폭스콘과 위스트론에 이어 페가트론이 2022년에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기 시작함.
- 인도의 아이폰 수출이 2022년 4~9월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2/23년에는 전년대비 약 두 배 규모인 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JP모건은 2022년 말까지 애플 아이폰 14의 5%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2025년에는 전 세계 아이폰의 25%가 인도에서 생산될 수 있다고 분석함.
- 인도의 대기업 타타 그룹은 위스트론과 인도 내 아이폰을 조립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계획 실행 시 타타 그룹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최초의 인도기업이 됨.
- 애플은 에어팟 이어폰, 비츠 헤드폰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자료: Cheng, Ting-Fang(2022. 10. 5), "Apple asks suppliers to shift AirPods, Beats production to India," *Nikkei Asia*; ET Bureau(2022. 9. 28), "Apple's iPhone 14 India manufacturing shows maturity of India production capabilities: Moody's," *The Economic Times*; Gupta, Surajeet(2022. 9. 27), "Ten days after global launch, Apple starts assembling iPhone 14 in India," *Business Standard*; Jacob, Shine(2022. 9. 30), "Pegatron starts iPhone factory in Chennai, third such firm in India," *Business Standard*; Phartiyal, Sankalp(2022. 10. 4), "Apple iPhone exports from India doubling is boon to Modi's plan," *Bloomberg*; Singh, Manish(2022, 9, 22), "Apple to move 25% iPhone production to India by 2025, 20% iPad and Apple Watch to Vietnam, analysts say," *TechCrunch*; Wu, Debby(2022. 9. 9), "India's top conglomerate in talks to join club of iPhone makers," *Bloomberg*.

■ PLI 제도에 포함된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인도 대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타타 그룹은 전기자동차, 전자제품, 5G 텔레콤 기기,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4년 동안 9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추정됨.³⁰⁾
 -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앞으로 인도의 10년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강조함.
- 아다니는 향후 10년간 투자계획인 1,000억 달러 중 70%를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입해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장 3곳을 신설해 태양광 모듈 및 풍력발전용 터빈을 생산할 계획임.³¹⁾
- 릴라이언스는 공장 5곳을 신설해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장치, 그린수소 및 연료전지 시스템, 전력전자장치를 생산하는 등 향후 3년 동안 1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임.³²⁾
 - 암바니 회장은 "녹색산업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믿을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함.
- 마힌드라는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BII와 함께 5억 달러를 전기자동차(SUV)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³³⁾
- 베단타-폭스콘(60:40 합작회사)은 191억 달러를 투자해 28nm 반도체 및 8세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반도체 조립 및 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2022년 9월 구자라트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2년 내에 공장 가동을 시작할 계획임.³⁴⁾

30) "The world's biggest bet on India,"(2022. 9. 17), *The Economist*.

31) Chakraborty, Sayan(2022), "India's Adani Group plans to invest over \$100bn in next decade," *Nikkei Asia*.

32) Cornish, Chloe(2022. 8. 30), "Mukesh Ambani says India can rival China in green tech," *Financial Times*; Raval, Anjali et al.(2021. 6. 24), "Ambani's Reliance appoints head of Saudi wealth fund to board," *Financial Times*.

33) Shah, Aditi et al.(2022. 9. 23), "Indian automaker Mahindra in talks to raise up to \$ 500 mln for EV push," *Reuters*.

마. 국제정치경제

■ 2010년대 중반부터 인도와 중국 간 군사 마찰이 가열되었고, 인도가 중국경제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함.

-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 2017년 인도군과 중국군의 2개월 이상 대치, 2020년 유혈사태가 발생한 이후 인도와 중국의 외교적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됨.³⁵⁾
- 인도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대중국 수입 규모를 조정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의 대중국 수입은 2017~18년 764억 달러에서 2020~21년 652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대중국 무역 적자는 631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감소함.³⁶⁾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시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공산품 유입이 인도의 산업화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인도정부는 2019년 11월 RCEP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함.³⁷⁾
- 인도정부는 사업활동 제한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³⁸⁾

■ 선진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에 인도가 참여하고 있음.

- 인도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있으며, 4대 분야 중 공급망을 포함한 3개 분야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³⁹⁾
- 2017년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력체제인 4개국안보대화(쿼드, Quad)가 재개되었고, 의제가 군사협력에서 인프라, 녹색경제, 기술개발, 공급망 안보 등으로 점차 확대됨.⁴⁰⁾
 - 2021년 쿼드 참여국은 향후 반도체공급망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경제의 필수 부품 및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⁴¹⁾
- 호주, 일본, 인도는 2021년에 발표한 공급망탄력성계획(SCRI)을 통해 공급망에 대한 위기대응 전략을 조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참여국간 거래처 연계 행사 및 투자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임.⁴²⁾
 - 본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일본정부는 인도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6개의 지원프로젝트를 선정함(글상자 3 참고).⁴³⁾
- 2022년 공급망장관급포럼에 미국,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인도가 참여하였으며, 참여국들은 공급망의 중장기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성, 다양성, 안보, 지속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⁴⁴⁾

34) "Vedanta signs MoUs with Government of Gujarat to set up semiconductors and display fab units"(2022. 9. 13), *Vedanta Press Release*.

35) Madan, Tanvi(2022. 10. 4), "China has lost India," *Foreign Affairs*.

36)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2. 2. 4), "Indian exports to China witness growth," *PIB Delhi*.

37) Erken, Hugo & Michael Every(2020), "Why India is wise not to join RCEP," Rabobank Economic Report.

38) Patranobis, Sutirtho(2022. 2. 17), "Beijing criticises New Delhi for 'suppressing' Chinese firms," *Hindustan Times*.

39) 2022년 9월 인도는 무역 분야에 대한 협상 참여를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함.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2),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for Prosperity ministerial meeting was inclusive and fruitful: Shri Piyush Goyal," *PIB Delhi*.

40) The White House(2021. 9. 24), "Quad principles on technology design, development, governance, and use," Briefing Room, Statements and Releases.

41) The White House(2021. 9. 24), "Fact Sheet: Quad Leaders' Summit," Briefing Room, Statements and Releases.

42) Ministry of Economy, Trade & Industry(2021. 3. 15), "Joint statement on the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by Australian, Indian and Japanese trade ministers," METI Press Release.

43) Embassy of Japan in India(2022. 5. 24), "List of applications approved: "Program for the Supply Chain Resili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 Six of the eight approved projects are from India," *What's new archives*.

글상자 3.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탄력성 프로그램'의 인도 내 지원 프로젝트

- 인스타립브는 혁신제조 시스템과 선진 디지털 유통시스템을 활용해 3D 프린터로 생산하는 인공기관의 인도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 ACSL은 드론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드론 디자인에서 생산까지의 인도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계획임.
- 사그리는 위성자료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인도 토양의 질소함량을 분석하고 적정량의 비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일본의 화학비료 수입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계획임.
- 쇼와덴코는 인도의 실리카를 사용해 일본 및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 필터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와 위험요인을 시각화하고, 전체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덴소는 인도에서 해운사와 물류업체를 연계하는 저온 유통체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센서 자료 및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신선도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임.
- 후지필름은 검진자료 인프라를 설계 및 개발하여 인도의 보편적 의료보장에 기여할 계획임.

자료: 一般社団法人 日本機械工業連合会(2022), “令和3年度補正 海外市場調査等事業費補助金(インド太平洋地域サプライチェーン強靱化事業)に係る間接補助事業者の公募の結果について.”

■ 인도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2010년 아세안과 한국, 2011년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수입 급증에 따른 경제구조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10여 년 동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추진력을 잃음.
 - 2010년 전후 시작된 인도-유럽연합, 인도-캐나다, 인도-호주 등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함.
- 2020년대 들어와 인도가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기 시작함.⁴⁵⁾
 -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호주와의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캐나다 및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재개되었고, 영국과의 협상이 시작됨.

■ 국제적 환경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기조를 유지하고 대선진국 경제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가 제조업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중국 의존도 축소를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수출 주도형 경제 육성 등이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재추진 및 공급망 관련 다자간 협력체제 참여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⁴⁶⁾
-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서방과 중국 간 마찰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상황에서 인도가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동차 생산 등에 사용되는 저부가가치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도를 반도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⁴⁷⁾

44) U.S. Department of State(2022. 7. 20), “Joint statement on cooperation on global supply chains,” *Office of the Spokesperson, Media Note*.

45) Cyril, Melissa(2022. 10. 31), “Updates on India’s FTA in 2022,” *India Briefing*.

46) Palit, Amitendu(2022. 9. 15), “Decoding India’s revived free trade agreement rush,” *World Economic Forum*; Panda, Jagannath(2022. 3. 17), “Furthering an EU-India supply chain connect in the Indo-Pacific,” *ISPI Commentary*.

3. 시사점

■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과 함께 인도가 유망한 제조업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인도 내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인도가 외교적·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다변화하려는 선진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인도에 대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10월에 발표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6%가 인도경제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1%가 향후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인도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도경제의 가장 매력적인 요인'을 물어보는 질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신흥 제조업 허브'라고 응답한 비중이 61%로 가장 높음.⁴⁸⁾

■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의 연속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2024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BJP)의 승리가 유력함.
 - 2019년 총선에서 BJP가 543석 중 303석(2014년: 282석), BJP가 이끄는 보수정당연합인 국민민주동맹(NDA)이 353석(2014년: 336석)을 확보하는 등 모디 총리가 대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함.⁴⁹⁾
 - 2024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5개 주의회 선거가 2022년 2~3월에 실시되었고, BJP가 4개 주에서 승리함.⁵⁰⁾
 - 2022년 10월 19~25일 기준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77%로 설문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⁵¹⁾ 2022년 8월 '역대 가장 선호하는 총리'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에서 모디 총리는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보다 더욱 높은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함.⁵²⁾
- 2024년 총선에서 BJP의 입지가 축소되더라도 산업화는 정당을 초월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로, 인도정부가 제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은 자당이 집권한 시기에 백색혁명(낙농업), 녹색혁명(농업), 텔레콤혁명(통신업)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제조업 혁명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함.⁵³⁾
- 다만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감안해보면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거나 보건, 연료, 식량 등의 분야에서 복지정책 수요가 확대될 경우 제조업 활성화에 투입되는 자원 규모가 선거 시기 전후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⁵⁴⁾

47) Farooqar, Rana(2022. 10. 31), "We must prepare for the reality of the chip wars," *Financial Times*; Reed, John(2022. 9. 2), "India bets on chipmaking," *Financial Times*.

48) Ernst & Young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2022), "Vision 'developed India': Opportunities and expectations of MNCs."

49) Vaishnav, Milan & Jamie Hinton(2019), "The dawn of India's fourth party syste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한형민 외(2019), 「인도 모디 2기 정부 출범의 의의와 경제정책 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0) 김도연 외(2022),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1) Shelburne, Peyton(2022. 11. 3), "Global leader approval ratings," *Morning Consult*.

52) Verma, Rahul & Shamik Vatsa(2022. 8. 14), "India@75 survey: Modi the most popular PM ever, Nehru second," *Mint*.

53) "Congress will usher in a manufacturing revolution: Rahul"(2020. 2. 6), *The Hindu*.

■ 한국 제조업체들은 인도의 대내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진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열위에 있으나 인도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특정 분야에서는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인도정부는 '전자제품 대규모 생산'에 대한 PLI 제도의 목적이 인프라, 기술 개발 등의 여건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국에 비해 8.5~11.0%의 높은 비용을 재정지원으로 일부 보전하는 데 있다고 명시함.⁵⁴⁾
- 국제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업전략 수립 시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just in time'에 비해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에 대한 리스크 완화와 지속성, 탄력성을 중시하는 'just in case'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차원의 대외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가 안정적인 제조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 인도정부의 우선순위 및 정책 실행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목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녹색산업 육성의 경우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온난화 현상 △대기 오염 △에너지 수입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인도정부는 산업화를 위해 자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신규 진출하는 산업의 경우 인도기업들이 기술 및 자금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제조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우호적이므로, 한국기업은 인도기업과의 합작 및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릴라이언스 뉴에너지 솔라는 덴마크 스티스탈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인도에서 수소 전해조를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를 구자라트주에 설립할 계획이며, 녹색수소 생산비용을 현재 1킬로그램당 4달러 이상에서 세계 최초로 1달러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임.⁵⁶⁾
-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제조업 보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매출, 국내 부가가치 등 구체적인 조건부를 충족해야 하며, 방대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업역량을 확보해야 함.
- 인도 주(州)별로 상이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 주(州)정부별로 육성하는 제조업 분야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⁵⁷⁾

■ 인도의 산업화 전략과 연계된 제조업 외 경제 부문에서도 대규모 진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개선에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면서 엔지니어링 및 정보통신 시스템 시장에서 큰 수요가 발생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의 확충과 함께 물류 및 유통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산업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⁵⁸⁾

54) Schlogl, Lukas and Kyunghoon Kim(2021), "After authoritarian technocracy: the space f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democratic developing countries," *Third World Quarterly*, online first.

55) IPHW Division(2020), "Notification - Subject: 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PLI) for large scale electronics manufacturing,"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56) Reliance Industries Limited & Stiesdal(2021), "Reliance New Energy Solar Limited (RNESL) and Denmark's Stiesdal A/S sign a cooperation agreement to collaborate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HydroGen Electrolyzers in India."

57) 노윤재 외(2023),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8) 한형민 외(2023),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캐나다연기금, 아부다비 국부펀드, 일본 제라파워, 골드만삭스는 인도의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인 리뉴 파워의 지분을 확보해 장기적인 투자 모델을 구축함.⁵⁹⁾
- 제조업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며 연구개발과 산업디자인 분야도 유망한 진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글로벌혁신지수 순위가 2016년 66위에서 2018년 57위, 2020년 48위, 2022년 40위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2022년 기준 중저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함.⁶⁰⁾

■ 한국정부는 인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인도와의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인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 포섭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같이 한국정부도 인도와 더욱 밀도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12월부터 인도가 G20 의장국을 맡으며 글로벌 어젠다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IPEF, 쿼드 등 다자간 협력체의 협의 내용 및 추진전략이 곧 구체화되고 공급망 안정화, 인프라 확충,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시행된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시장개방 수준과 원산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수출 활용률 제고 및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도 CEPA 개선협상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정부는 시장조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에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산업정책 변화와 현지 기업의 협력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싱크탱크 및 산업단체가 인도정부의 정책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양국의 의견을 공유하고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인도에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612개의 싱크탱크가 있으며 경제통합, 산업발전, 인력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음.⁶¹⁾ KIEP

59) 2022년 3월 말 기준 리뉴파워의 지분 93.0%를 보유하고 있는 리뉴에너지글로벌의 Class A 보통주를 4개 금융기관이 각각 26.2%, 20.6%, 10.1%, 4.1%를 보유하고 있음. 골드만삭스와 캐나다연기금은 각각 Class C 보통주의 89.4%와 10.6%도 보유하고 있음. Renew Energy Global PLC(2022), "Form 20-F,"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6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2022), "Global Innovation Index 2022," WIPO.

61) McGann, James(2021), "2020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P).